

컴퓨터 주변기기 산업 업계 현황과 시장

남일희
전자신문 기자

국내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업체들은 모니터, 프린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CD롬 드라이브 등 PC용 핵심주변기기 분야에서 그동안 국내시장을 장악해 온 미국, 일본, 대만산 제품들을 제치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입대체는 물론 PC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레이저프린터 분야에서 삼성, LG전자는 95년말 시장점유율이 50% 내외였으나 96년 중반부터는 65% 내외로 급상승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완제품 판매는 물론 국내 레이저프린터 전문업체에게도 부품형태로 엔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7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된다.

잉크젯 프린터 분야에서도 국산

품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5년까지 잉크젯 시장은 수입 엔진을 사용한 제품이 대부분이었지만 96년 2/4분기부터 삼성전자가 국산엔진을 사용한 신제품을 양산해 불과 6개월 만에 국내시장의 27% 이상을 공급하는 등 수입제품을 빠르게 대체했다.

기억장치 분야에서도 국산품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드디스크드라이브의 경우 삼성전자가 국내 내수시장에서 절반 가량을 공급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 현대전자가 인수한 맥스터사의 제품도 국내에 출시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5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산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CD롬 드라이브 분야는 LG전자와 삼성전자, 태일정밀 등 3개 업체가 올해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해 시장을 완전히 장악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멀티미디어 업체들과도 활발한 수출상담을 전개하고 있어 해외시장 공략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17인치 이상의 고해상도 모니터 시장에서도 일본산 제품을 국산품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매킨토시 국내 총판인 엘렉스컴퓨터는 그동안 기본 모델로 일본 소니사의 17인치 모니터를 채용해 왔으나 최근 국산 모니터의 품질이 세계 정상급 제품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판단해 한솔전자의 17인치 신제품 '마젤란'으로 전격 대체했다.

올해 국내 컴퓨터 주변기기 업계의 두드러진 변화는 업체마다 세계화 전략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가산전자, 두인전자, 서한전자, 석정전자 등 주요 멀티미디어 주

변기기 공급업체들은 97년부터 해외마케팅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등 수출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나선 상태다.

가산전자는 외국인인을 포함한 수출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마케팅 전담팀을 96연말 부터 전격 가동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멀티미디어 전문업체인 미국 재즈멀티미디어사를 전격 인수해 세계화 전략을 적극 추진중이다.

또 두인전자는 96년말 미국내 수출거점인 '엘레시드'사를 설립,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와 VGA 통합보드를 주력제품으로 판매중이다.

서한전자는 지난해 미국 새너제이에 구미지역의 판매를 총괄하는 현지법인 홈미디어사를 설립한데 이어 올해에는 시장가능성이 높은 중국시장에도 진출, 수출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며 석정전자도 올해 미주지역, 호주, 네덜란드, 일본, 남미 등지에 ATX형 펜티엄 주기판을 집중 판매해 1천5백4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국내 멀티미디어 주변기기 생산업체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 것은 올해 내수시장 경기가 지난해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외시장을 집중개척, 매출규모를 늘리고 세계적인 멀티업체로 자리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고객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점

도 최근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사들의 두드러진 변화다.

삼보컴퓨터, 한국휴렛팩커드, LG전자, 가산전자, 제이씨현시스템, 두인전자 등 컴퓨터 멀티미디어 주변기기 공급사들이 최근 제품 무상수리기간을 2~3년으로 늘리고 수리기간중 임시로 사용할 제품을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AS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질을 크게 개선하고 나섰다.

삼보컴퓨터는 인쇄비용을 절감한 보급형 컬러프린터 신제품 '스타일러스컬러' 시리즈를 출시한 것을 계기로 소비자 AS체계를 대폭 강화해 프린터 수리기간동안 대신 사용할 프린터를 무상 대여중이며 한국휴렛팩커드도 잉크젯 프린터 '메스크젯' 모델과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젯'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AS가 발생했을 경우 AS센터에서 제품을 직접 회수, 수리를 마친 후 가정에 배달해 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말부터 CD롬 드라이브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AS망을 구축, 전세계 어디든 24시간 동안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산전자는 하드웨어연구소 및 소프트웨어연구소 등 부설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연구원과 엔지니어를 대거 투입해 고객전화상담, 방문상담, 개인메일서비스, 인

터넷 웹사이트 운영, 24시간 자동팩스정보서비스 등을 실시중이며 두인전자도 용산 나진상가내에 애프터서비스점을 개설해 전자상가내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보드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입력장치 부문에서는 스캐너 시장이 가열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멀티미디어 기능이 PC에 기본 탑재되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이미지 입력 장치인 스캐너 수요가 급증해 중견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공급업체들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스캐너 시장에 신규 진출한 업체는 중견 컴퓨터업체인 큐닉스컴퓨터와 주변기기 메이커인 제이씨현시스템, 록산산업, 엘유아이 10여개 업체.

이들 업체는 20만원~60만원대 보급형 컬러스캐너를 2~3개 모델씩 공급, 기존 업체들의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캐너 가격경쟁이 한층 치열해 일부 단종된 모델의 경우 10만원대에 유통되는 등 덩핑 수준의 가격파괴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후대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 개인 사용자에게 인기가 높았던 핸드스캐너는 울들어 판매가 격감해 울연말께는 대부분의 업체가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입력장치로 영상회의용 디지털카메라를 빼놓을 수 없다.

국내 멀티미디어 영상업체들이 지난해말부터 네트워크나 PC통신을 즐기면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PC용 디지털비디오 카메라를 경쟁적으로 출시, 최근에는 참여업체수가 20여개사로 급증했다.

이처럼 영상회의시스템에 필요한 PC용 디지털카메라의 공급업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최근 주요 PC메이커들이 영상회의용 카메라를 탑재한 고성능 멀티PC를 대부분 출시한데다 멀티미디어 카드 업체들도 PC용 디지털카메라가 포함된 저가형 영상회의패키지를 잇따라 개발, 양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영상회의용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팬택, 선인정보통신, 국제전자, 삼성항공, 세이와시스템즈, 가산전자 등 주요 멀티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조만간 일본, 대만산 제품이 수입될 것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30여개 업체가 시장쟁탈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출력장치인 모니터는 올해부터 15인치 기종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해 지난 20여만에 처음으로 14인치의 벽을 깨고 대형화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올들어 대부분의 PC가 화상통신·3D게임·영화를 통한 어학학습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주무기로 내세우면서 고화질 대형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

15인치 및 17인치가 14인치 시장을 급속히 대체한 것이 주요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전체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했던 14인치는 울들어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반면 15인치와 17인치 수요는 눈에 띄게 늘어나 각각 50%와 15%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화 추세와 함께 올해 모니터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대기업과 전문업체들간의 시장쟁탈전이 한층 가열됐다는 점이다. 대선산업, 한솔전자, 태일정밀, 신호테크 등 그동안 수출에 주력해오던 중소 전문업체들이 울들어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산업은 96년말까지 생산물량을 10만대 규모로 늘리고 이중 4만대 이상을 국내 시장에 공급, 시장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최근 모니터 사업에 뛰어들어 한솔전자도 17인치 대형 고급 모니터를 중심으로 총판 및 기존 1백여개 대리점을 통해 내수 유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호테크도 삼보컴퓨터와 OEM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현재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생산공장을 호법으로 확충, 이전하는 등 내수시장 공략에 나섰다 태일정밀도 최근 생산물량을 월 15만대로 늘리고 수출과 함께 내수시장 공략을 적극 추진중이다.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유니버설

시리얼버스(USB) 포트를 내장한 모니터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현대전자, 한솔전자 등 주요 모니터업체들은 차세대 주변기기 접속 규격인 USB포트를 채용한 모니터를 최근 개발 완료하고 수출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프린터 업계는 보급형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주요 프린터 공급업체들은 올해 20만원대 보급형 잉크젯 제품을 전면에 내세워 가격과파 경쟁을 벌이고 레이저프린터도 40만원대 제품을 잇따라 출시해 무차별 가격경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로인해 올해 제품 판매량이 지난해 보다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 인하경쟁의 여파로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지난해보다 10% 미만의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전체 프린터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1백40만대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잉크젯프린터가 1백3만대를 차지해 9.5% 소폭 신장하고 레이저프린터는 38%가 늘어난 34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잉크젯프린터 부문이 가장 치열한 가격경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잉크젯 분야의 선두업체인 한국휴렛팩커드와 지난해 비약적인 신장세를 보이면서

2위로 급부상한 삼성전자가 팽팽한 선두다툼을 벌일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잉크젯 프린터시장은 고급화 성향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중에는 1펜 방식의 저가형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3/4분기 이후에는 2펜 방식의 20만원대 제품이 등장해 기존 40만원대 제품을 빠르게 대체해 나갈 전망이다.

또 컬러 인쇄시 현재 0.2~0.5ppm 수준에 불과한 인쇄 속도를 1~2ppm까지 개선한 고속 컬러 잉크젯도 등장해 30~40만원대에 시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레이저프린터 분야는 외형상 37.5%나 성장돼 프린터 시장의 고급화를 사실상 주도할 전망이다.

레이저프린터 시장은 지난해 큐닉스컴퓨터와 LG전자가 나란히 선두를 차지했지만 올해에는 삼성전자와 한국휴렛팩커드가 만만치 않은 추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돼 이들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5%를 장악하면서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저프린터는 A4 시장이 28만대 2천2백억원의 방대한 시장을 형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레이저 시장을 주도할 것이 확실하며 A3 제품은 지난해까지 소량 판매돼 온 B4 제품군을 흡수하면서 총 6만대가 판매돼 9백60억원의 신규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또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당 20매 이상 고속으로 인쇄할 수 있는 네

트워크프린터 판매도 올해 급신장해 전년대비 3배이상 늘어난 3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6만대 가량이 판매돼 사양세에 접어든 도트매트릭스 프린터는 올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가 줄어든 4만대 안팎으로 예상돼 정부기관, 군사 기관 등 특수분야에 나치마켓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프린터 업계는 부라더상사, 대신정보통신, 뉴텍컴퓨터, 롯데캐논, 샤프전자 등 중견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공급사들이 레이저, 잉크젯 프린터 사업에 대거 신규 진출함에 따라 시장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업체는 96년 4/4분기 이후 개인용 레이저프린터 및 잉크젯 프린터와 특수용 프린터 등 각각 2~4종의 신제품을 출시,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나서 삼성, LG, 삼보, HP, 큐닉스 등 선발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컴퓨터 멀티미디어 보드업체들은 내수보다 수출비중을 크게 늘려 생산물량과 채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내 보드 생산업체들은 90년 이후 값싼 대만산 제품에 밀려 내수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게 사실이지만 96년말부터는 멀티미디어 복합제품과 전문가용 고성능 제품을 내세워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등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나섰다.

가산전자, 두인전자, 서한전자, 석정전자 등 중견 멀티미디어 주변기기 공급업체들은 지난 96년부터 주요 수출대상국에 현지법인과 연구소, 협력업체 등 수출거점을 확보해 둔 상태로 97년부터는 본격 시장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핵심 부품인 주기판의 수입물량이 80만대 규모로 급증해 대기업 PC자체 수입분을 포함한 국산품 공급율이 60%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97년말에는 국산 주기판 순수 유통시장 점유율은 30% 안팎으로 급락할 전망이다.

주기판 생산업체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10여개사를 넘었지만 97년 3월 현재 석정전자, 태일정밀, 대산산업 등 4, 5개 중견업체들이 매달 5천~3만장 안팎의 제품을 생산해 이중 30% 정도를 미주, 남미, 동남아,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보드업계를 주도할 제품군은 디지털 동영상출력기능을 기반으로한 멀티복합보드를 손꼽을 수 있다.

멀티미디어환경이 보편화되면서 96년 상반기까지 VGA카드를 중심으로 TV수신, 오버레이, MP-EG, 사운드 등 단독기능의 멀티미디어 카드가 각기 독립적인 제품군을 형성했지만 최근에는 이들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통합 VGA카드가 주력제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통합VGA카드시장은 96년 6월말까지 판매량이 10만장을 넘어서 전체 멀티카드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했으며 3/4분기 이후 판매량이 급증해 96년에만 총 45만장 가량의 통합보드가 판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통합멀티보드는 생산자 입장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기능을 보드 한 장에 내장, 생산원가를 절감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여러 장의 보드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충돌현상을 없애고 가격도 단품으로 구입했을 때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64비트 VGA기능에 MPEG 재생기능, 무선 리모콘, 고성능 사운드, TV수신, 외국어 학습, 동영상 캡처기능 등 10여종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부가기능을 통합한 제품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으며 1백28비트 VGA카드 복합제품도 97년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97년에는 멀티 통합제품 판매가 급증해 연말까지 대기업 멀티PC 자체 수급분을 제외하고 60만장 안팎의 복합제품이 순수 유통망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운드카드분야도 지난 2년간 침체국면을 벗어나 97년부터 뜨거운 시장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96년 하반기까지 음성데이터를 송신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보내온 음성데이터를 해

독해주는 양방향(Full Duplex) 사운드카드가 시장을 석권했지만 97년에 접어들면서 64폴리 제품과 3차원 사운드지원제품이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밖에 개인 디지털 통신기기인 팩스모뎀부문도 시장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7년 팩스모뎀 시장은 상반기까지 33.6Kbps 제품이 주도한 후 3/4분기부터는 56kbps 제품에게 대권을 넘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된 56kbps 모뎀이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만 56kbps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33.6kbps모뎀의 기능을 일부 향상시킨 수준에 불과하며 락웰과 US로보틱스 진영간에 표준화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외로 33.6kbps 제품이 장수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기억장치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기록용량의 대용량화와 휴대용 제품의 대중화 두가지 테마로 압축될 전망이다.

먼저 핵심 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보급형 모델은 올해초 평균기록 용량이 2.0GB에서 연말에는 4~5GB로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HDD 저장용량이 연간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체 사용자와 고급PC 사용자층도 대용량 제품을 선호해

멀티미디어 입출력 기능을 강화한 7~9GB용량의 엔터프라이즈용 제품 판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올해 하드디스크 대용량화가 예견되는 것은 최근 영상처리 응용제품과 영상회의시스템 보급율이 급증한데다 2, 4분기부터는 차세대 영상매체인 디지털다기능 디스크(DVD)도 가세해 방대한 크기의 멀티미디어 영상물과 오디오,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자료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대용량 HDD 수요가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드디스크 대용량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스크 한 장당 훨씬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고밀도 집적기술 및 MR헤드를 탑재해 가격-성능비를 높인 제품도 경쟁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관련업계는 플래터 기록밀도가 현재 디스크 한 장당 1.6~2.0GB 수준에 불과하지만 연말에는 장당 3.5GB 안팎의 고밀도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평균 용량은 지난 90년 이후 1년6개월에서 2년마다 2배씩 신장해 왔다.

하드디스크와 함께 최근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광자기디스크드라이브(MODD) 용량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피니클마이크로, 후지쯔, 맥스윌릭스, 레인저 등 주요 광드라이브 공급사들이 최근 신기술을 탑재해 기록용량을 2~

8배나 늘린 대용량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DVD롬 수준인 장당 10GB용량의 신제품이 국내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억장치 분야에서 올해 가장 치열한 시장경쟁을 치를 분야가 휴대용 기억장치 제품군이다. 지난해부터 매년 두배 이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용 기억장치는 올해에도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260% 이상의 가파른 신장세가 예견된다.

이와함께 제품군도 다양화 되어 현재 영일컴퓨터, 새로텍, 시게이트코리아, CDL, 선경유통 등 10여개 업체 20여종의 제품군에 불과한 것이 올해말에는 20여개 업체가 40여종 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올해 휴대용 기억장치 주력제품으로 프린터 포트에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는 MODD

와 PCMCIA 방식의 CD롬드라이브 제품군을 전면에 내세워 소규모 기업체와 고급PC사용자층을 공략할 방침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중견 기억장치 업체인 태일정밀이 미국 캐슬우드사와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용 HDD를 본격 양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초소형 HDD 생산 업체인 미국 인터그럴사도 한국시장에 본격 상륙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 쟁탈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자기기분야 전략육성품목 40개 선정

정부가 올해 자본재산업 육성방안으로 중점 지원하는 전자기기분야 40개 전략품목이 잠정 확정됐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대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품목 중 차량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등 전자기기분야 40개 품목을 잠정 확정, 최종 심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40개 품목 중에는 △차량자동요금 징수시스템 △고음질 스피커용 세라믹 진동판 △인터넷 전화번호 변환용 서버 및 관련 주변장치 △차입전송기 △전화수신용 부품 △

PCS용 듀플렉서 △고주파증폭기 △디지털 혈압측정기 △아날로그 디지털 플레시시스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컬러인젝션 고음질 카스피커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파수 카드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인 영상정보 보호시스템과 가정에서도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정용 극장스피커시스템, 우등열차와 항공기·택시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조회기, 의료기술 입체 내시경용 3차원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서 등이 포함됐다.

통산부는 이들 전자기기분야 40개

품목외에도 섬유·기계분야에서 대일 의존도가 큰 260여개 품목을 추가 선정, 총 300여개 품목을 올해 전략산업 육성품목으로 선정,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과제당 최고 30억원까지 총 2천억원을 연리 6%에 3년 거치 8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전략산업 육성품목 지정 여부를 결정했으며 전자기기 분야의 수입대체 효과는 약 7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